

소사가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부천이란 지명은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부평군과 인천부의 비도시 지역을 합쳐서 부천군이 설치될 당시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서 붙인 것이다. 1973년 7월에 부천군 소사읍(素砂邑)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부천시의 시화(市花)는 복숭아꽃이다. 그래서 부천시가 복숭아꽃을 알려고 있다. 복숭아꽃이라는 말은 복숭아꽃을 의미하는 복사와 마을을 의미하는 골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한자로 도화동(桃花洞)으로 표현된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고 또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과일이다. 복숭아 부천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이 될 것이라고 남사고 선생이 500년 전에 예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신선(神仙)과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 그리고 그림들이 많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든 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러한 전설 속의 '별유천지 도원경(別有天地桃源)'이 바로 부천시에 있는 소사(素砂) 땅이라는 것이 여러 경전이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물을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나니라(묵 2:17)'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흰 돌이 '소사'라는 지명이다. 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은 소사(素) 소(素), 모래 사(砂)라는 단어에 이미 흰 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만 가지고 '소사'를 언급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겠지만 소사라는



▲ 소사 땅에서 광명한 새벽별의 이름(熙星)으로 오신 분이 천지공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최초의 복숭아, 소사 복숭아(Sosa Peach)」 출처: https://youtu.be/2XKf0moy_YQ

지명은 여러 곳에 언급된다.

그 정확도에 있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모든 세계)를 능가하는 한국인 격암 남사고 선생의 예언서(격암유록)에는 놀라우리만큼 소사에 대한 언급이 많다.

雞籠石白非公州요 平砂之間眞公州라 (계룡석백비공주요 평사지간진공주라)

계룡산의 흰 돌은 충청도의 공주에 있는 것이 아니요, 부평과 소사 사이에 있다.

非山非野 仁富之間雞籠白石 平砂福處 武陵桃源此勝地 (비산비야 인부지간계룡백석 평사복처 무릉도원차승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소사가 바로 복된 땅이요 무릉도원이며 승지이다(※정각목 비결서에 계룡산 백석의 흰 백자가 흰 소사라라고 기록).

즉 낙원(예전동산)을 상실했지만 소사에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무

너지도 솟아(素砂) 날 길이 있다'는 한국의 속담은 여기에서 유래된 말로서 앞으로 소사에서 하늘의 역사(천지공사)가 이루어질 것을 비밀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三神山下鳴鶴 桂樹範朴是吉地 (삼신산하우명학 계수범박시길지)

삼신산 아래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 계수와 범박이 길지이다.

여기서 소울음 소리(엄마)는 이긴자의 대명사요, 온 인류가 영적인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즉 도의 젖(母乳)을 찾으며 구세주인 인류의 엄마를 에타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소울음 소리인데 그 곳이 바로 계수동과 범박동이 있는 길한 땅, 소사라는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구세주가 있는 한국(남조선)이 온 인류의 부모국이며 만승천자 왕중왕(萬乘天子 王中王)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말은론), 머지않아 온 세계 만민들이 구세주를 보기 위해 한국의 소사 땅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희성님은 앞으로 부천시(소사)가 한국의 수도가 되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仁富平砂桃源地 十勝地出現死未生初當運이라 (인부평사도원지 십승지출현사초당운)이라

검은 돌이 희어질 때 구세주가 온 줄 알아라

아랍 사람들은 '검은 돌(Hajar al-Aswad: 알-하자르 알-아스와드)'이 희게 변하면, 메시아가 지상에 감평한다는 예언을 믿는다. 이긴자께서 198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그 아랍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는데 까만 돌 사이에서 샘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까만 돌이 하얗게 될 때에는 바로 구세주가 온 줄 알아라" 하고 이제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어"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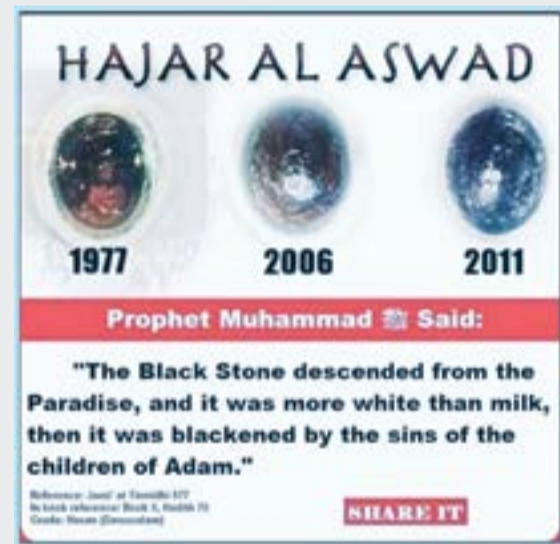
이렇게 아랍 사람들은 그 까만 돌이 하얗기만 하면 구세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긴자께서 아랍 갔을 때 그 까만 돌이 하얗게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구세주가 왔다 보다. 이제 구세주가 왔으니까 이 까만 돌이 하얗게 된 게 아니냐?" 하고 막 떠들었다.

이사야 41장에 예언된 대로 동방 땅골 땅 모퉁이 한반도에서 출현한 이긴자 조희성님께서 26일간(1987년 4월 17일부터 5월 12일)의 제3차 세계순방 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방문했다. 그 당시 사우디 정부 측의 올림픽 조직

위원장 등 많은 사람들로 부터 최고의 귀빈 대우를 받았다. 여러 가지 열매로 양념을 한 양을 통째로 삶고는 손으로 양의 살점을 뜯어내 손님에게 권하는 최고의 접대를 받았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우디 장관이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셈에서 얻은 검은 돌을 이슬람 성지의 카바신전에 모시고 있는데, 그 검은 돌이 옅어 들어 희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대로라면 아마도 구세주께서 올 때 아니면 내년쯤 이 사우디에 왕립하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 사우디 사람들은 구세주를 눈앞에 모셔놓고도 몰랐던 것이다.

이긴자께서는 구세주가 여기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속으로 웃음을 지으시고 그러나 만일 내가 구세주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의 제3차 세계순방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1987년 4월 17일에 순방을 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부터 검은 돌이 더욱더 희게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출처: 유튜브 진자아롱TV
*이슬람 성지 카바신전 검은돌이 실제로 희어졌다,



※ 사진 설명: 이슬람교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외벽 동쪽 모서리에 박혀 있는 검은 돌(Hajar al-Aswad: 하자르 알-아스와드)이 2006년도와 2011년도에 희게 변한 모습을 보인다. Prophet Muhammad Said: "The Black Stone descended from the Paradise, and it was more white than milk, then it was blackened by the sins of the children of Adam."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씀했습니다. "검은 돌은 원래 낙원에서 내려왔을 때는 우유보다 더 희었습니다. 이후 아담의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검게 그을렸습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3>
"하나님의 법칙은 일원적인 법칙"

이제 신천신지에는 음양의 법칙인 일원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일원적인 법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야 평화가 오고 영생이 오는 것이다. 그 세계는 내가 나오, 내가 너이므로 싸움이 있을 수 없으며 못마땅한 생각이나 짜증이 없는 평화의 세계다.

오늘날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나 평화의 햇살을 밝히며 일원적인 영생

의 법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학설이요, 이 세상의 법칙과 상반되는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자유율법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마귀 역사를 일삼는 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기존 법칙을 가지고 영은 안 보이고 육은 보인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어둠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기는 삶

주특기로 무장하라

1980~90년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공공 기관이었다. 이유는 칼 퇴근이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적고,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최악의 직장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직원을 아주 편하게 해주었던 직장이다. 이런 회사는 처음에 입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좋은 학생은 기본이고, 이 밖에도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입사가 가능했다.

일단 들어가고 나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제 하던 방식으로 오늘도 일을 하고, 작년에 하던 일을 올해도 한다. 나이를 먹은 데 대한 공로도 호봉도 오르고, 진급도 하고, 봉급도 오른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나가라고 한다. 20년간 한 일이라고는 회사에서 하던 고정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없다.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기안도 제대로 못한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영업 같은 것은 더더욱 못한다. 어느새 그는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전 문가가 되는 것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주특기를 확실히 갖고 닦아 거기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의 반감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정보 통신 분야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세대가 지금 세대이다. 예전에는 일류 학교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했다. 고교 시절, 대학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한때 공부를 잘했던 것이 지금 그 사람의 역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현대 사회는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지식을 가진 자는 자유롭다. 그들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회사나 땅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지식은 물려줄 수 없다.

이처럼 지식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본인에게 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깨우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는 공공 기관이 사실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라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인 삼성전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현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경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은 자신만의 지식을 쌓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그렇게 자신만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겁날 것이 없다.*

경축 메시아절
영생교 하나님의 생회 승리재단
2023년 12월 25일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